

일제 식민지시대가 남긴 역사의 상흔

친일파 조선어학회 정신대문제 등 다룬 책 연이어 출간

해방 반세기를 바라보는 지금까지도 제대로의 진상이 밝혀지지 못한 채 남아있던 일제의 일제하 역사적 사건들이 하나둘씩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대표적인 몇몇 사람의 이름만 거론되던 수위의 친일파 연구가 '인명소사전'을 내놓을 만큼 확대되고, 그동안 신문자료 모음에 그쳐왔던 중군위안부 문제가 피해당사자들의 생생한 육성증언을 담아내는 단계로까지 올라서 진상규명에 한층 다가서게 한다.

이밖에도 일제탄압이 극에 달하던 1942년 조선의 최고지식인들의 모임이라 할 조선어학회 회원들을 대거 감옥에 집어넣었던 '조선어학회 사건'을 다시 조명하고 있는 '얼음장 밑에서도 물은 흘러'(한글학회)를 비롯해서 일제하에서 관직에 몸담았던 한인관료들을 시기별로 나누어 개인별 출신성분 이동사항 등을 추적한 '일제하 韓人관료 임면상황'(대동문화사) 등은 그동안 자료의 미비로 전혀 손을 못댔던 미답의 분야에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받는 저술이다.

총독부 관보 통해 친일관료 추적

최근에 나온 친일파에 관한 세 권의 책은 종래 친일파연구가故임종국씨 한 사람에 의해 연구되고 그 안에 머물렀던 데서 진일보하여 그의 유지를 이어받아 설립된 반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 역시 그의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소장연구자들에 의해 각각 특성있게 연구된 성과물이란 점에서 이 분야 연구에 활기를 불어넣을 일로 학계에서 평가되고 있다.

반민족문제연구소(소장 김봉우)가 「친일파 인명소사전」을 내놓기 위한 전단계작업으로 최근 펴낸 「친일파 99인」(1·2, 3은 근간, 둘째개)은 강만길(고려대) 박현채(조선대) 서중석(성균관대) 장하진(충남대) 등 학계의 중진·소장 연구자 45명이 필자로 참여하여 범조계, 학술계, 경제계, 군인·경찰계, 여성계 등 각 분야에서 친일행위를 한 주요인물 99명의 친일행각을 낱낱히 밝힌다.

'분야별 주요인물의 친일이력서'라는 부제가 설명하듯 각 인물의 친일이력이 소상히 기록돼 있는데 이름이 사전이지 엄격히 말하자면 '친일파 심판서'인 셈이다. 여기 밝혀낸 숫자만으로도 이 작업을 추진한 반민족문제연구소의 의지를 읽게 하는데 본래 대상에 넣었던 인물은 이를 훨씬 능가하는 200여명 선이었는데 "친일행적이 뚜렷하여 매국노라 불려도 손

일제하 한인 관료들은 행정 사법

교육계 등 각 분야에 기용되었으나

정책을 결정하는 총독부 본부에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간혹 있다

하더라도 교과서편집 등 기술직에

국한되었는데, 이는 결국 한인

관료들은 입신의 영달을 위해 일제에

적극 협력했지만 일제의 식민지수탈을

위한 도구로 이용당하고 말았음을

증명한다.

색없는 이들인데도 증거자료가 없어 못 쓰는 경우가 상당수였다"는 게 연구소측의 아쉬움이다.

역사문제연구소(소장 이이화)가 펴낸 「인물로 보는 친일파 역사」(역사비평사)는 지난해 여름 이 연구소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던 '한국사 교실'의 한 테마였던 친일·민족반역자문제를 묶은 것이다. 이 '한국사 교실' 강의의 특색은 각 분야의 라이벌 두 사람을 함께 묶어 분석하는 것인데, 그 비교분석으로 인하여 서로의 특징이 더 선명히 부각되는 장점이 있다. 「인물로 보는 친일파 역사」 역시 이완용과 송병준, 김활란과 모윤숙, 김은호와 심형구 등 각 분야의 대표적인 친일자 두 사람을 동시에 조명함으로써 친일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게 한다. 학민사가 지난 91년 펴낸 「친일파1·2」(김삼웅, 정운현 외)에 이어 올 4월말 내용을 「친일파3」은 그동안 성역처럼 보호되어 왔던 언론계의 친일인사들을 비롯하여 비공개 경찰·관료들의 친일행위를 고발할 것으로 보여 또한 기대를 모으는 저술이다.

일제하 공직에 있었던 관료들의 친일행위는 일제총독부의 관보를 가지고 현재 작업중인 연세대 안용식(52·행정학과) 교수에 의해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이다. 이달말 내용을 「일제하 韓人관료 임면상황」(제1권, 1910~1919년)과 안교수가 지난해말 펴낸 「한말 지방관 임면록」, 그리고 앞으로 나올 제2권(1920~1945년)이 하나로 짝을 이루게 되면 구한말부터 해방후까지의 관료 친일파들의 행적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

이 책에 따르면 한인관료들은 행정 사법 교

육계 등 각 분야에 기용되었으나 전시기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총독부 본부에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간혹 있다 하더라도 교과서 편집 등 기술직에 국한되었는데, 결국 한인 관료들은 입신의 영달을 위해 일제에 적극 협력했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식민지수탈을 위한 도구로밖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새삼 증명해 준다. 안교수는 내년 2권을 완성한 뒤에는 친일파 관료들의 해방후 이동상황까지를 추적, 이들의 시작과 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계획인데, "이들 친일파의 구한말부터 해방 이후까지의 변신과정을 밝혀내 청산되지 않은 역사가 얼마나 가치관을 전도시키고 왜곡시켜 왔는지도 규명할 생각"이어서 이제까지 추상적이고 구호에 그쳤던 친일파 척결문제가 구체적으로 본격화하는 최근의 학계분위기를 반영해 준다.

"이로써 일제하 未濟문제 모두 풀려나갈 것"

한편, 조선어학회 사건의 진상과 관련자들의 생애와 활동을 생존해 있는 당사자들이나 그 자손, 제자들에게 의해 회상이나 추모 형식으로 쓰고 있는 「얼음장 밑에서도 물은 흘러」는 조선어학회 사건 50주년을 맞아 한글학회에서 펴낸 것.

당시 사건관련자 중 정식기소된 33인 가운데 생존자인 안호상, 이석린 선생은 직접 회고담을 쓰고 있는데, 최현배 이희승 이은상 등 국어학자들 외에 변호사 교육학자 지주 등 여러 분야의 조선지식인들이 두루 이 사건으로 인해 고문과 옥고를 치른 점을 들며 이 사건의 목적이 단순한 한글운동 탄압이 아니었음을 들려준다.

시대일보 중의일보 등의 신문사를 경영하면서 상해임시정부에 재정을 지원하고 조선어사전편찬 사업에도 후원금을 대다 적발돼 악형을 치른 만석꾼 이우식 이야기와 조선어학회의 활동을 사실상 이끌어내었던 이극로, 교육사학자 이만규 등 해방후 북한에서 활동함으로써 남한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두 인물에 대한 회상기 등이 눈길을 끈다.

일제 식민시대의 민족적 참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군위안부 문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연구회가 그들의 구술을 받아 정리·기록한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한울)은 당시신문과 일본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던 군위안부 및 정신대 문제를 피해 당사자들의 입을 통해 직접 증언한 국내 첫 성과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군위안부 문제는 일제점령하의 여타 문제와는 달리 배상에 앞서 진상규명이 급선무였던만큼 역사적 사실을 밝혀내는 실마리인 피해자들의 증언이 가장 중요한 자료임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 책에는 중국 대만 버마 라바울 등지로 끌려가 위안부 생활을 해야 했던 19명의 생생한 증언 및 이를 사실적으로 뒷받침할 연표, 참고지도, 관련사진들도 함께 수록, 사료적 가치를 높여준다.

"군위안부 정책은 일제의 조선침략정책이 집약된 것이다. 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면 여자근로정신대, 징용, 징병, 지원병 등 피침략시대의 모든 문제가 풀려나갈 것"이라는 윤정옥(이대교수, 정대협 의장)씨는 문제해결의 열쇠인 증언집의 발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다.

—정혜옥 기자



최근 많이 출간되고 있는 일제하 연구서들.